

고환율 추세, 일시적 현상인가?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올 3월 1456.95원으로 최고점이던 평균환율(매매기준율)은 정국안정과 함께 하락해 6월엔 1366.95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11월 말 기준 평균환율은 1457.77원으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평균환율이 1457원을 넘어서면 경우가 이번을 포함해서 세 번이 있었다. 하나는 IMF 외환위기 시기로 1997년 11월부터 1998년 3월 기간에 나타났고, 1998년 1월에는 달러당 1706.8원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다른 하나는 2008년 9월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3월 평균환율이 1461.98원을 나타냈다. 그러면, 현재 고공행진 중인 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향후 고착될 것일까? 이에 대한 진단은 실효성이 있는 환율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새 정부 이후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주장들을 살펴보자. 먼저, 국내 투

자자의 해외주식 매수증가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1월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2025년 3분기 해외증권투자액은 전분기 대비 890억 달러가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액 역시 885억 달러나 증가했다. 또한, 전분기 대비 국내의 해외직접투자가 70억 달러 늘어난 반면, 해외의 국내투자는 37억 달러가 오히려 감소했다. 여기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를 서로 상계한 순대의 증권투자는 5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의 국내직접투자를 상계한 순대의 직접투자는 107억 달러이다. 이는 국내 해외증권투자가 고환율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좀 낮고, 국내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해외의 국내 직접투자의 축소에 기인하는 정도가 더 큼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한미관세협정 이행에 따른 외환시장의 선 반영결과에 대한 지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14일에 한국이 3500달러의 대미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등의 관세인하에 합의했다. 우리의 외환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현금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불가피했지만, 우리는 유럽식의 관세인하방식보다는 일본식의 대미투자방식을 따랐다. 현재의 고환율은 아마 향후 우리 경제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낮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그리고 국가채무 비중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에 기인해 생산성이 낮고,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전개될 ‘피크코리아’ 우려다.

원화 약세 추세에는 일시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이 섞여 있지만, 고환율이 지속될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의 대처로는 결국 한국경제의 체력향상과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일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혁신 등으로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화되는 고환율에 의해 나타날 서민경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물가 및 금리안정과 같은 이식위천(以食爲天)의 정책병행도 빼놓을 수 없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감량의 혁신, 삶의 변화



기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비만 치료제 열기가 뜨겁다.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앞다투어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서구형 고도 비만부터 한국형 비만까지 맞춤형 치료제 개발 소식이 연일 이어진다. 주사제에서 경구제, 패치 등으로 신제형을 독자 개발하기도 하며 다양한 연구개발에 폭넓게 응용 가능한 ‘플랫폼’ 확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들어 비만기본법 제정,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까지 화두에 오르며 혁신 신약이 가져올 ‘체중 감량’과 ‘삶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까지 점점 커진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비만이라는 현대 사회의 질병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국민이 삶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 전망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야 한다.

즉 혁신적인 감량 효과가 진정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만 치료의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 의학적 관점에서 비만은 당뇨병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다시 체중이 돌아오는 경우 역시 질환의 만성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에서는 비만을 질환으로 분류하면서도 정작 관련 정책은 비만을 질환으로 취급하지 않는 상황이 치료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비만치료제 급여화 논의 등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동시에 해당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오남용 가능성도 열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의 비판 표준 진료 지침에서 행동인지 치료를 가장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투약이나 약물을 건강 관리의 지름길로만 인식하는 풍조는 또 다른 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제 개발을 통한 혁신 가속화, 제도 활성화 등과 함께 올바른 사용과 인식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미 일부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살 빼는 전쟁’의 강력한 무기처럼 소비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아무리 약효가 뛰어난 신약이 나오고 쉽게 활용 가능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좋은 수단일 뿐이며, 비만 관리 핵심은 개인 생활 습관과 주도적인 노력이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사용과 인식을 지지하는 사회적 인내심이 중요하다.

/mlee23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9일 (음 10월 30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48년생 상식 밖의 일이었으나 실적에는 도움. 60년생 내 것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72년생 병 없이 살게 되니 조상님께 감사. 84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나 불청객이다.

 소

37년생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49년생 일시적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61년생 세상은 끝이 없는 넓은 바다. 73년생 기술이 다양하여 대우받던 날들이니 더 연마하자. 85년생 망설임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토끼

38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50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이 상쾌하고 나아갈 길도 보인다. 62년생 돈에 큰 기대는 하지 말 것. 74년생 잊고 살다 보니 낙원이 따로 없다. 86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토끼

39년생 사돈의 일에 참견하면 일이 더 확대되니. 51년생 이사하지 않겠다고 밀고 나가라. 63년생 세상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다. 75년생 남과 같이 행동하면 손실이 없다. 87년생 자식이 시험이 목전이라면 관음 기도를 해볼 것.

 용

40년생 결실이 보일 때 강하게 밀고 나가자. 52년생 문서나 계약을 꼼꼼하게 살펴라. 64년생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게 마련이니 생각하라. 76년생 신경질적이다 보니 의지할 곳이 없네. 88년생 나를 이해해 주는 배우자가 있어 감사.

 뱀

41년생 원칙을 벗어난 행동으로 곤경에 처한다. 53년생 남의 함정에 끼여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 65년생 자신을 알면 흉볼 것도 없다. 77년생 이성간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 89년생 남이 칭찬을 해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

 말

42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54년생 가고 싶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66년생 운전 시에 양보하도록. 78년생 친구의 깊은 우정에 감사. 90년생 가족 간에도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현명.

 양

43년생 작은 일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 55년생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67년생 뜻이 있다면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공부하라. 79년생 배우자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인내해야. 91년생 지나친 아집은 아난지를 생각.

 원숭이

44년생 혼자서 하는 작업으로 즐거움이 많다. 56년생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68년생 언행을 조심하고 오늘부터 삼각관계 경계마당을 주의. 80년생 전화 및 피싱에 주의. 92년생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문제.

 닭

45년생 금전 문제로 마음의 근심이 쌓인다. 57년생 이성애 너무 조바심하지 말자. 69년생 공연한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내려버려 두어라. 81년생 보험을 검사하여 손실보험을 들도록. 93년생 집수선할 때 남의 조언을 가버리여 거지 말자.

 돼지

46년생 노력하니 성과도 다르다. 58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도 거칠 것이 없다. 70년생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82년생 인생이란 자신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94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운 법이 있는 법.

 돼지

47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산행은 자중자해야 할. 59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이다. 71년생 조금해하지 말아라. 83년생 남의 시간을 어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95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인생사.

김상회의四季 명리학에서 행복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행복을 원한다. 현대인들이 도파민 중독에 빠졌다는 소리까지 듣는 것도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음식 운동 놀이 노래 춤 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다닌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 철학도 행복을 추구했고 동서고금의 철학 역시 마찬가지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은 닮은 부분이 있다. 여러 철학이 지나친 즐거움보다 편안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편안함을 강조하는 또 다른 철학이 있는데 명리학이다. 명리학은 자신을 이해하고 운의 흐름에 순응하며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타고난 운명 속에서 예를 들어 사주에 재성이 약한 사람이 남들처럼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돈을 번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한데 갖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니 돈을 잘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인성印星이 강한 사람은 생각하고 배우는 것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데 숫자로 성과를 내야 하는 재무나 회계 쪽에서 인정받는다 해도 즐거울 수 없다. 재성財星이 약하면 억지로 돈을 쫓아다니기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을 할 때 편안하고 행복하다. 인성이 강하다면 남들보다 깊이 있는 학문이나 전문 분야에 몰두하여 성취감을 얻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행복에 관한 명리학의 가르침은 단순하다. 기운을 알고, 그 기운에 맞게 살면 된다는 것이다. 불火 기운이 강하면 뜨겁게 살아가게 되고, 물水 기운이 강하면 느리게 흐르면 된다. 木 기운의 사람은 성장하며 배워야 하고, 토 기운의 사람은 중심을 잡고 사람을 품어야 한다. 그 편안함이 곧 행복이니 흘러가는 대로 맞춰서 사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1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2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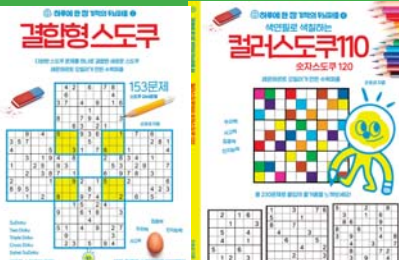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비전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6	3
6					8		
				6	3		
	9	8		3			
		2	1		9	7	
				2		9	4
			8	9			
			6				5
9	4						1

		8					
	6					9	2
7			1				
	3			1		7	
			2		5		
		2		3			4
					6		2
5	2	8	7				3
							9

1	2	8	2	9	8	9	7	6
9	6	8	7	1	9	1	2	8
7	2	9	1	6	8	9	2	1
8	7	6	9	2	1	8	9	1
9	8	1	6	8	1	2	9	7
2	9	1	9	8	7	8	6	2
6	8	7	8	9	2	1	1	9
2	1	2	8	7	9	6	8	9
8	9	9	2	1	6	7	8	2

1	6	9	8	2	8	9	7	2
9	8	7	1	6	2	8	2	9
2	2	8	9	7	6	1	1	8
6	7	1	2	8	9	2	9	8
8	8	9	7	2	1	6	1	1
2	9	2	8	1	6	7	8	9
7	9	8	2	8	1	9	2	6
8	1	2	6	2	9	8	9	7
9	2	6	7	9	8	1	8	2